

2024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공연-초연 】 심의평

2024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초연 부문은 368건이 접수되어 서류평가를 통해 인터뷰 심의 대상 32건을 결정한 후,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19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장르별 세부 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동시대에 유효한 질문을 담아내는 새로운 시선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작품의 완성도와 가치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깊은 고민과 완성도 높은 제작 계획 중에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제작 환경 속에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체험 환경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 및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작품을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간의 삶과 시대를 담아내는 재현 너머의 창작의 고통을 옅게 만들어 가시는 열정과 노력에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 분야는 지원자(단체)의 작품 활동의 연계성 및 작품의 주제와 스토리보다는 음악 안의 구체성이 지원서에 잘 드러난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 내에 미칠 파급력을 중점 사항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선정 작품이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화되길 기대하고, 더불어 미선정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예술활동을 응원합니다.

무용 분야의 경우 개인과 단체가 고루 선정되었으며, 창작적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들에 주목했습니다. 예술 창작이 시대에 대한 발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의성과 다양한 접근 그리고 실험성 등을 긍정적인 지표로 삼은 작품들을 평가했습니다. 거창한 구호나 트렌디한 유행으로 치장된 기획서가 화려하기는 하나 추상적이고 공허한 문제들이 발견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도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출신지 및 활동 근거지를 두고 뿌리깊고 웅숭깊게 작업해 온 시간들을 존중하였으며, 각각의 작업들이 지역의 예술 활동에 보다 새로운 자극이 되길 기대합니다.

공연기획의 시각에서는 일부 작품들이 예술가의 상상력, 미학적 관점만 부각시키다보니 최종 결과물인 ‘공연’을 어떻게 무대에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여 다소 공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상상한 작품을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해 낼 것인지에 대한 기획과 연출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공연은 관객을 빼놓고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홍보와 관객에 대한 계획도 조금 더 신경 써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모두 우수하여 경기도가 보유한 예술적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대한 다행스러움과 이를 위해서 지원 규모가 좀 더 확대될 수는 없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연활동이 예전과 같이 활기를 띠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접수건수의 증가로 지원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심의위원들의 꼼꼼한 판단과 적극적인 인터뷰에 응하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선정 예술인 및 단체의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2.26.

심의위원

한승원 ((주)HJ컬처 대표)
민소윤 (음악공장 노을량 대표)
김남수 (무용월간지 <몸> 편집위원)
도준태 (문화예술데이터연구소 대표)